

## 2026년 자동차산업 전망 (산업연구원 2026년 경제·산업 전망 요약 발췌)

### □ 2026년 세계 경제

- 2025년보다 낮은 경제 성장을 예상 (IMF 3.1%, OECD 2.9%)  
관세 문제가 현재보다 악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예측

세계 주요국 경제 성장을 전망 (%)

	2025년 연간 (4분기 전망 포함)		2026년 연간	
	IMF	OECD	IMF	OECD
전세계	3.2	3.2	3.1	2.9
미국	2.0	1.8	2.1	1.5
유로존	1.2	1.2	1.1	1.0
일본	1.1	1.1	0.6	0.5
중국	5.2		4.7	

- 유가와 환율: 2026년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2025년보다 낮은 수준 예상.  
단 대미 투자 집행 방식과 시기에 따라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2026년 국제 유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달러/배럴, 원/달러)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1.9	68.1	70.2	57.5	60.0	58.8
원달러 환율	1,426.7	1,406.8	1,417.7	1,400.8	1,382.5	1,391.7

### □ 2026년 국내 경제: 연간 성장을 1.9% 전망

- 2026년 국내 경제는 수출 소폭 감소·소비 증가·정부 확장 재정 등으로 내수 성장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단, 아래의 대내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감소·둔화는 확정 예상.  
미국 관세 부담에 따른 영향 정도, AI 중심 ICT경기 호조 지속 여부, 주요국 재정·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및 내수 회복 강도 및 지속 여부, 수출 둔화 정도 등

### □ 2026년 자동차산업 전망

####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영향

- 해외 생산
  - 각국의 보호무역, 관세, 현지 수요 대응, 신산업 투자 확대 등의 요인으로 해외 생산 증가 전망. 미국·유럽·인도 등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충과 라인 조정이 활발히 추진될 예정
- 주요 시장 전망
  - (미국) 고관세와 제조업 비용 상승 등으로 자동차 수요 제한 전망.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는 증가하나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은 정책 변화 영향으로 수요 둔화 예상.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 48.9%
  - (유럽) 경기 둔화 속에서 친환경 정책과 설비투자 회복으로 자동차·일반기계·철강 수요 소폭 증가 예상. 자동차 수출 중 서유럽 수출 비중 17.7%

- (중국) 경기 둔화와 구조전환 정책으로 자동차 일반기계·철강 수요 정체 또는 감소세 지속 예상.

## 2. 주요 이슈

- 관세
  - 자동차자동차부품 품목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고관세 수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수출에 부정적 영향.
  - 2025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시장으로의 선수출, 미국 내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관세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대미 수출이 급감하며 고율 관세 영향이 가시화.
  - 자동차부품은 2026년 5월부터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목적으로 지급되는 관세 상쇄금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낮아질 예정. 부품업체 부담 증가 예상. 현지 동반 진출한 대형 부품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시 미국 생산 확대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공급망 및 생산량 조정 불가피.
  -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추세.
- 탄소중립
  - 주요국의 환경정책 완화로 인해 전기차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2026년에도 지속 될 전망이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
  - 미국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폐지로 시장 위축 불가피. 또한 이는 상호관세 부과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차전지에 미칠 것.
  - 유럽 등은 보조금·세제 혜택 강화 및 보급형 전기차 출시 등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전망
- 제품 단가
  - AI 및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비용 확보와 수익성 낮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보존, 고관세 비용 가격 전가 등 제품 단가 상승 요인 우세

## 3. 생산·수출입·내수 전망

- 생산
  - 2025년 대비 0.5% 증가, 409.2만 대 예상.  
2026년 상반기 연간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울산 공장 가동, 중견 업체 전기차 위탁 생산 확대가 예상되나 내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 409.2만 대 생산 예상 (2024년 412.8만 대, 2025년 407.2만 대 예상).
- 수출
  - 완성차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 예상.
  - 해외 생산 증가에 의한 수출 대체 및 부품 조달 현지화 확대로 자동차산업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 자동차 부품 수출액 포함 총 919억 달러 전망.
- 수입

- 자동차 부품 수입 포함 전년 대비 0.3% 감소한 217억 달러 전망.

#### ○ 내수

- 주력 차종 모델 노후화와 경기 침체 지속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170만 대 전망.

※ 참고: 13대 주력산업 전망 관련 기상도

2026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철유	↑↑	◐	◐	↑↑
	석유화학	◐	◐	◐	◐
	성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미하, ↑ -10~ -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제, 철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2026년 13대 주력산업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체코/슬로바키아(✖) 뉴르카예(◐) 인도(✖) 인도네시아(◐)
조선	중국(◐) 베트남(✖✖) 미국(✖✖✖)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인도(◐) 중국(◐)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 미국(◐)
성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가전	동남아(◐) 인도(✖) 동유럽(◐) 멕시코(✖✖) 중남미(✖) 중국(◐) 미국(✖)
반도체	중국(↑) 미국(✖)
디스플레이	중국(◐)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바이오헬스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베트남(✖✖) 아일랜드/독일(✖)

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미하, ↑ -10~ -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